

# 식민지 근대성과 일상폭력-위생

담당교수 : 배민재

# 세균설과 '근대'

- “세균설 혁명은 이전의 어떤 혁명보다 더 심원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Bruno Latour)
- 과학, 권력, 일상생활의 변화 & 세균설
- 1915년(9월 11일~10월 30일) 朝鮮物産供進會
  - 총 116만 4,383명 관람(조선인 유료 입장객 44만 3,811명)
  - 위생, 의료 관련 물품, 표본 전시(제2호관) : 임질균, 이질균(적리), 흑사병균, 파라티푸스병균, 연쇄성구균,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디프테리아균, 결핵균, 뇌척수막균, 폐렴균, 파상풍균 등의 혈청과 표본 등 / 콜레라 환자의 장 모형, 적리와 아메바성 적리 환자 모형, 디프테리아 환자 모형, 수두 모형, 코에 매독이 침입한 제3기 매독 모형, 선페스트 모형, 두창 환자 모형
  - 반세기 세계전염병의학사의 발전 응축

# 세균과의 조우

- “근일에 한국의사 1인이 호열자 병균 1개를 착득(足得)하여 유리병 안에 두었는데, 아주 미세해서 눈으로 보기 어려웠으나 4,000배 되는 현미경에 눈을 대서 본즉, 그 충(虫)의 형상이 머리부분은 까맣고 몸 부분은 붉었으며 몸 주변에 까만 털이 나 있었는데, 이 의사가 이를 병원에 두고 한성 내 친한 사람을 초치하여 판광케 하고 병균 때문에 병이 생기는 이유와 죽여 없애는 방법을 설명하였다더라.” (『황성신문』 1902년 10월 28일자)
- “박테리아가 있는 그 물 한 방울을 현미경 밑에 놓고 보면 그득한 것이 버러지 같은 생물 인데 그 생물 까닭에 대개 열 사람이면 아홉은 체증이 있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학질을 앓는다든지 무슨 병이 있든지 성한 사람은 별양 없고....(중략)....이 생물 까닭에 초목과 곡식이 자라며 이 생물 까닭에 사람이 병도 나며 대저 세계에 무론 무슨 병이든지 백 명에 구십구 명은 이 생물 까닭에 병이 생기는 것이요. 이 생물 때문에 병이 전염되어 한 사람이 병을 앓게 되면 그 생물이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독립신문』 1897년 9월 2일자)

# 세균설로 무장한 위생경찰

- 식수위생 관리, 분뇨 등 오예물 관리
- 콜레라·적리·장티푸스·파라티푸스·페스트·두창·성홍열·디프테리아·발진티푸스 등 9종의 급성전염병 관리
- 임질·매독 같은 생병과 폐결핵 같은 만생 전염병
- 말라리아·페디스토마 같은 조선의 풍토병
- 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환자의 격려, 강제입원, 강제소복, 교통차단
- 환자에 대한 호구조사, 위생 강화, 소독청결방법, 하수(河水)사용금지
- 시장폐쇄와 제례 및 집회 금지, 상업 제한, 기차와 선박에 대한 검역
- 가축전염병방역
- 의료인과 의약품 단속
- 물과 얼음, 온천, 육류와 육류제품, 우유와 유제품, 식물성 식품, 주류성 음료의 검사와 단속
- 세균의 생활과 사멸에 관한 사항

『위생경찰강의일반』(1913년 평안남도 경무부 발행)

# 새로운 '범죄'

- 환자·환자로 의심되는 사람과 사망자가 있는 집안과 기관의 책임자로 이를 의사에게 검진을 요구하지 않는 자와 경찰관과 헌병, 검역위원에 보고하지 않는 자
- 전염병 환자 집안에서 의사와 해당 관리의 지시대로 소독을 하지 않는 자
- 전염병 환자나 사체를 관리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이동한 자
- 전염병 병독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것을 해당 관리의 허락 없이 사용, 접수, 이전, 유기, 세척한 자
- 전염병 환자의 사체를 해당 관리의 허락 없이 화장한 자
- 경찰관서의 허락 없이 전염병 사체를 2년 이내에 개장한 자
- 교통차단을 위반한 자
- 의사에게 청탁하여 전염병 환자 신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방해한 자
- 해당 관원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고의로 방해할 목적으로 기피한 자

조선총독부 제령 제2호 「전염병예방법」 中

# 식민지화 이전의 '근대적 위생' 논의

- "1890년대 서양인의 위대함은 위생을 잘하고 거처와 음식을 몸에 이롭도록 하여 병이 없고 근골이 장대한 데서 비롯한다...." (『독립신문』, 1899.6.20. 「자미있는 문답」, 1면)
- "조선인이 입을 벌리고 다녀 남 보기도 어리석고 더러운 먼지가 들어가 위생에 좋지 않다...." (『독립신문』, 1896.12.12. 「논설」).
- 그 외에도 인민의 위생을 위한 의약의 보급, 의학의 발전, 오염물을 큰 길에 무단 투기하는 습속 개선, 도로의 정비가 급선무라는 위생인식이 나타나기 시작(『독립신문』, 1898.7.25. 3면, 「회원위생」; (『독립신문』, 1897.12.4. 3면, 「토론회」; (『독립신문』, 1897.9.7. 3면, 「독립협회 토론회」; (『대한매일신보』, 1907.9.22. 3면; (『독립신문』, 1897.12.11. 4면, 「인민위생」)

# 위생행정의 식민지 근대성

- 위생행정
  - 근대성과 식민주의 정책이 교차하는 영역
  - 식민지민의 일상을 규율
  - 직접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 교차
- 식민지배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서의 "위생"
  - '문명화의 사명'
  - 근대적 위생 개념, 제도, 법제, 담론 활용
  - 식민지민의 일상, 신체, 의식주와 생활방식을 규율·개입

# 위생경찰 주도의 위생행정

-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 - 위생과 - 위생경찰·헌병
- 식민지민의 신체와 의식주의 전반을 경찰이 직접 관리, 감독
  - 전염병 예방과 방역 위주의 검열
  - 검병호구조사
  - 청결조사
  - 위생조합 조직과 운영
- 국가개입의 타당성 : 전염론, 백신주사의 효능과 예방의 중요성, 환자 격리와 발생지역 단속 및 검역, 개인의 위생 책임론
- 順化院(避병원) 설립(1911)
- 「전염병예방령」, 「전염병예방규칙」 공포(1915)



# 위생행정과 폭력의 경험

- "조선인은 위생사상이 유치하여 불결한 것을 관변에서 간섭했더니 반감을 가졌고 그 반감이 3·1운동의 중대 원인이었다."
- "청결을 빌미로 매년 몇 차례씩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농민에게 가하는 구타와 모욕은 다른 경우에 경관이나 헌병이 인민을 억압, 멸시하는 정도 이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며 청결법에 대해서까지 반감을 갖게 만든다."

(『동아일보』, 1927.2.1. 사설: 「조선인과 위생 악선전의 일례」)

- 당국의 방역조치 때문에 평소보다 양민들이 경관을 몇 배나 厭忌하며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시가지에 퍼져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여서 疫菌을 퇴치하려는 경관을 역균보다 더 畏忌하며 蛇蝎보다 더 미워하는 분위기

(『동아일보』, 1927.2.1. 사설: 「괴질의 유행과 당국의 방역」)

# '채변검사'

- "유부녀 이성녀(24세)는 채변 후 집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는 중 경찰의 감시를 뚫고 이웃집 담을 넘어 도주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 『동아일보』, 1920.9.1.3면, 「보균자가 도주」
- "한 달전 남편이 콜레라로 사망한 여성의 집에 방역부가 몇 차례 드나들다가 급기야 한 밤중에 안방까지 들어와 자는 여자를 깨워 "몸을 검사한 후 검변할 테니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여자가 거역하자 여러 경관과 같이 올테니 그 앞에서 벗겠느냐고 겁박했고 이에 못 이겨 여자가 탈의하자 돌연히 달려들었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1926.10.5. 3면, 「검변을 빙자하고 야간에 부녀능욕」

# ‘청결검사’

- 집에 들어가 안방 천정에 걸어둔 갓집을 軍刀로 흔들어 먼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집 주인 (고령의 노인) 최영숙에게 그 죄를 온동리에 알려야 한다면서 갓집을 지게 한후 거리로 끌고 나와 ‘갓집(笠筒)청결을 잘못된 죄로 조리를 돌립니다.’고 소리를 하라하며 안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면 군도까지 빼서 위협하였다. 최영숙이 10여집의 문앞으로 배회하며 명령대로 하다. 최영숙의 장남 최규현(26)이 부친 모욕 당하는 것을 차마 볼수가 없어서 자기가 대신한다고 청한즉 순사가 그의 뺨을 치며 ‘문명한 세상에는 대신하는 법이 없다.’고 하면서 부자를 구두발로 사정없이 쳤다. 최규현은 무고히 구타당함을 분히 여겨 순사에게 조금 저항하려 한 즉 ‘경관에게 저항하는 자는 위험사상 가진 자’라고 하고 즉시 그를 포박했다. 둘째 아들도 항의하자 이 집 삼부자놈은 모두 위험사상을 가졌다면서 함께 포박한 후 군도 자루와 참대 채찍으로 무수히 난타하고 군도로 다리까지 찔렀다. 최규현(장남)의 머리채를 산산히 풀어 뒤로 젖힌 후 손을 움켜쥐고 10리 가량 떨어진 주재소로 끌고 가 유치장에 넣으려다가 일본순사의 만류로 넣지 못하고 그곳 송경화의 집에 류숙하게 했는데 밤새 입에서 피를 토하고 상처에서 피가 흘러 생명이 위태하였다....(중략)

- 『동아일보』, 1922.9.13. 3면, 「人權蹂躪頻」

# ‘콜레라 소요’,

- “과학의 증명과 실지 경험에 의하면 보균자는 균이 있으나 무해한 자이지만 그의 배설물이 균을 전파함에는 진성환자 보다 더 심하다고 과학으로 설명하였다. 균에 대해 세밀히 유의하는 것은 과학을 믿하고 사회를 사랑하는 자의 행할 바이지만 당국자와 민의 태도는 유감이라는 양비론을 취했다. 보균자에 대해 포승을 사용하고 죄인같이 대우하여 납치, 호송의 감을 일으키는 것은 문명국에 있지 못할 바이고 민중이 반항하여 투석, 격투를 하는 것은 호상간에 신뢰가 없고 오해가 있기 때문....”

- 『동아일보』, 1920.8.22. 사설: 「보균자에 대하여」

# 근대성과 폭력성 그리고 탈근대·탈식민

- 이성주의의 보편적 진리
  - 정의, 평등, 자유, 행복 & **위생**, 발전, 질서
- 식민지에서 위생 – 근대성 < 폭력성
- 근대성은 식민주의와 교차할 때 반드시 폭력을 수반
  - 폭력 : 물리적 폭력 + 감정적 폭력
  - 민족차별적 인종주의와 문명화의 우월감
  - '문명화'를 위하여
    - : 근대의 훈육과 규율의 도덕적 권위를 가진 것으로 정당화
- 식민지민의 무력감과 열등감, 자기부정
  - 식민주의 완성(구조화된 식민주의)

“탈식민화를 통해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자 한다면 식민지민의 심리-영혼을 변화시켜야 한다” (Fanon, F., "The Wretched of the Earth", C. Farrington, trans, New York: Grove Press, 1963, pp.206~248.)